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사역 소식: 2024년 9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살렘입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서는 저희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마주한 다양한 사연 속 세 여인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의 배움과 여러분의 후원 덕에 저희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죠.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 저희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돌보고 응환히 여기는 마음은 진정 귀한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 35세의 라나*가 저희 여성 센터에 새로 입소했습니다. 처음 전화 통화를 했을 때부터, 즉시 입소가 필요할 것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가정 폭력을 비롯해 많은 일을 겪은 그녀는 노숙을 해왔습니다.

도착하여 센터에 들어올 때, 라나*는 갑자기 기쁨에 외쳤습니다. “안녕, 내 집이구나!” 마치 안전감과 소속감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응해 나아가며 스태프 및 다른 입소자들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라나*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에 함께했을 때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며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서로의 행동을 다시 살피며 그리스도의 본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는 늘 그러하듯이 생각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라나*가 열정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비유를 들려주시던 기억이 났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리고 라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의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어요!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저에게 물을 주고, 여기에 연락해보라고 전화 번호를 주었죠! 비유랑 똑같잖아요...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저희 센터에 라나*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녀의 구원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이갈은 웰아비브의 아비브 센터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중년의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갈은 금세 그녀가 처져있다는 걸 눈치챈죠. 그래서 음식을 권했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했죠. 모두 먹을만큼 음식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을 때, 오를리*라는 이름의 이 신규 방문자는 드디어 한 접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있는 중에 이갈과 자원봉사 팀의 한 여인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예슈아를 전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어요.” 오를리*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좋은 분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릴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와 벌을 대신 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때 이갈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그 순간, 오를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진정을 한 오를리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오를리*는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세 자녀를 뒀죠. 수년 동안 그녀는 파티에서 이따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카인을 했습니다. 8개월 전까지는 통제가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로펌에서의 일자리도... 그리고 두 달 전, 그녀는 노숙을 하며 다음 한 끼를 먹기 위해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노숙하는 모두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를리* 곁에 앉아있던 자매가 그녀를 안아주자, 또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같은 자신도 수년 동안 마약 중독을 겪었다고 오를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 변호사가 필요 했죠. 재활 센터에 와서 예슈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중독된 상태로 감옥에 있거나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만 자매님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수 있어요. 재활 센터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슈아에 대해 알아가세요!”

오를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오를리*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이같은 기도를 해줘도 되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죠. 그렇게 둘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를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비브 센터에 계속 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활을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슈아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요!

어느 날은 아쉬켈론에서 마트에 아내를 데리러 가고 있던 에두아르드는 한 가족이 인도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에두아르드는 마음 속에 이런 말씀을 감지했습니다. “멈춰, 저들에게 가서 말을 하여라.” 당연히 타치아나와 딸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보니,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갓 온 가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치아나의 남편은 전쟁 상황 때문에 함께 알리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치아나와 딸들은 타치아나의 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했습니다.



에두아르드는 음식과 옷을 좀 권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맙다며 받았고, 에두아르드는 작은 창고에 가서 그들을 위해 식료품과 신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그는 타치아나 가족을 언니 집에 태워다 주었는데, 언니도 그들만큼 놀랐습니다.

타치아나의 언니 역시 믿음이 없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녀가 타치아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거룩한 땅에 있잖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귀를 기울이셔. 정말 놀랍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만 해도 금방 그게 이뤄지더라고.”

타치아나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브 & 올가 비카스,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Aviv Ministry



dovbikas@gmail.com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저희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후원을 생각 중이시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vivministry.com